

완주군의회 하반기의장 누가될까

현 정성모 의장 · 김용찬 부의장 · 박웅배 · 이항자 의원 등 거론

완주군의회 하반기 의장 임기(2년)가 다음달 30일에 마무리 되는 가운데 하반기 의장(2년)이 누가 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주군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자천·타천 오르내리는 의원은 현) 의장 정성모 의장, 김용찬 부의장, 박웅배, 이항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성모 의장은 "전반기를 의원 간의 화합과 군민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편익 증진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김용찬 부의장은 "부의장의 직책인 의장을 잘 보좌 했으며, 완주군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의정활동을 전개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박웅배, 이항자의원은 자천·타천 오르내리고 있지만 국민의당 소속이 3명밖에 있지 않아 의장선거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일각에 후문이다.

결국 완주군의회 의원 10명중 6명(국민의당 3명, 무소속 1명)의 더 민주소속에 현) 의장인 정성모 의원과

김용찬 부의장에 2파전으로 접착진다. 따라서 의원들 간 물밑 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기기는 전반기를 무난하게 이끌어준 정성모 의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여론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같은 당 소속에 국회의원의 복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에 가장 앞을 서서 선거를 도운 김용찬 부의장도 무시할 수 많은 없다는 것이 정가의 전언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 · 김천 · 영동 의료 행복버스 출발

지역 간 협업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기대

무주군은 김천, 영동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는 201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장비를 탑재한 진료버스를 운행해 산도봉권역 의료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동검진차량에는

X-선 촬영기와 골밀도검사기, 체성분 측정기, 심전도기,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뇨검사기 등이 설치돼 있으며, 무주군보건의료원과 김천시보건소, 영동군보건소가 함께 12월까지 매주 월요일에는 김천시, 화요일에는 영동군, 수요일에는 무주군에서 혈압/혈당 측정, 골다공질 검사, 골밀도, 체성분 검사 등의 기초검진을 비롯해 골밀도 · 심전도 등의 검사와 진료를 무료

로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박인자 방문보건 담당은 "평소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이 맞춤형 검진과 상담, 처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검진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를 해 만족도를 높이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진료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추구 무주 적상파출소,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 이송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적상파출소 정상인 소장은 19일 사회적 약자인 관내 독거노인 중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적상파출소는 시골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병원에 다니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적상파출소 특수시책중 하나인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112순찰차를 이용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관내 어르신들이 감사하다는 반응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동네 어르신 중 한분인 박의순(82세)은 "몸이 불편하고 교통편이 없어 병원 다니기가 불편했는데 우리 동네 경찰관들이 바쁜 시간을 내줘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너무 감사 하면서 세상에 경찰관들이 친절하고 친근하고 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돼 믿음이직스럽다"면서 칭송이 자자했다.

이에, 적상파출소장 정상인은 "112순찰차를 이용 병원 이송 서비스를 제

공받는 어르신들에게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노인학대 및 보이스 피싱 사건, 노인 교통사고 등 어르신 관련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고원 전화상담
063-430-2951



원주 봉동초가 발명의 날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완주 봉동초 산자부 장관상

발명의 날 맞아 지역사회 교육 앞장 공로

원주 봉동초등학교(교장 전은희)가 제51회 발명의 날을 맞아 우수한 발명활동과 지역사회 발명교육에 앞장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5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봉동초 수상은 전국 초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기념식은 19일 오전 1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 등을 비롯한 발명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봉동초등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학교내에 발명교육센터를 설립, 운영중이며 8년째 창의 발명축제를 개최해 학생들의 발명 의식 고취에 앞장서왔다.

이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단채상 3회 수상, 발명인재육성협회

우수기관 3회 선정, LG생활과학아이디어 공모전 특별상 2회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특히 봉동초 발명활동 및 축제 개최는 지역사회 발명교육의 중심이 되고 전국 발명교육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전은희 교장은 "이번 봉동초 수상은 지난 2008년 발명센터를 개소할 당시 서명래 교장, 이봉회 교장, 김영수 교장을 비롯해 이운정·심재국 교사 등의 지속적인 헌신적인 관심과 노고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다"면서 "열정으로 발명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래세대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식 고취에 앞장서왔다."

이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단채상 3회 수상, 발명인재육성협회

/원주=이종복 기자

로컬블리스

"산약초타운에서 힐링을" 진안군, 구절초 군락지 조성

진안군은 산약초타운을 진안군의 새로운 관광명소 만들기 위해 구절초 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준비에 나섰다. 마이산북부 입구 홍삼산과 인근에 위치한 산약초타운은 약 15만㎡에 산약초전시관과 약초류 150여종 2만5,000본, 조경수 40여종 8만 5백주 등 다양한 종류의 산약초와 식물들을 식재했다.

지난해부터는 힐링과 생태체험, 어린이 생태학습 장소로 두루 활용기 위해 구절초 군락지 6만㎡를 정비해 군락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약초전시관, 산약초공원, 구절초군락지 등을 갖춘 산약초 전문 테마공원으로 거듭나 도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은 물론 마이산 북부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진안군은 20일 오후 2시 군청 강당에서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실시하는 생활안전교육은 고령자,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겨냥해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통약자의 방어보행 방법과 평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전기·가스의 안전점검 방법, 그로 인한 화재 예방법,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도 교육내용에 편성했다.

또한 긴박한 순간 누구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 소생술도 직접 해보는 순서도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 전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진안군은 19일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근상 부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 진안경찰서, 진안 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관련한 피켓과 대형 플래카드를 준비해 군민들의 주의를 끌며 가두행진을 하

고 장남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진안시장과 터미널 등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근상 부군수는 "이번 캠페인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와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군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자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힘썼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다문화가정 기초소방시설 설치·교육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8일부터 관내 다문화가정에 화재예방을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및 주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기초소방시설 보급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에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예방 주택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무진장소방서는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에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교육, 응급상황시 119신고요령, 기도폐쇄응급처치법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용주 서장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소방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서, 범암초 명예경찰소년단 학급별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펼쳐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학교폭력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범암초등학교 명예경찰소년단원(10명)과 함께 각 학급을 순회하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단복과 스카프를 착용한 명예경찰소년단은 쉬는시간을 이용하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급 별로 순회하며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및 피켓을 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범암초등학교는 전교생 수가 60명 남짓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학교지만,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명예경찰소년단은 학교폭력예방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보였다.

또한 범암초 명예경찰소년단은 교내에서 친구들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친구들을 보호하고, 교내순찰, 교통안전지도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또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